

방송법 개정관련 건의문 제출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 12월 9일 이에 대한 삭제제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문제 조항은 제32조3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32조2항의 광고주는 광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체심의기구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의문은 제32조3항에 대해 심의에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의 영향력 하에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사전검열에 해당돼 현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인바 심의에 필요한 제청은 업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제32조2항과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하면 향후 책임문제 및 면제와 관련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삭제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 확대 및 방송광고 자율규제시스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09년 제1차 편집위원회

지난 1월 8일 롯데호텔에서 제1차 편집위원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제 한국교카콜라 상무, 김주진 LG전자 부장, 임희석 대림산업 팀장 등이 참석해 지난해에 대한 리뷰 및 편집기획에 대해 논의했다.

2009년도 광고위원회 옥외분과 1차 회의

지난 1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2009년도 광고위원회 옥외분과 1차 회의가 있었다. 이 날 회의는 김정수 옥외분과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진행배경 및 과정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옥외광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과학적인 옥외광고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도 정기총회 및 특별세미나 개최

2009년 정기총회가 오는 2월 18일 10시 롯데호텔 2층 에미라드룸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특별세미나와 정기총회 본 행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총회에 앞서 열리는 특별세미나에서는 단국대 박현수 교수가 '민영미디어업 시대, 광고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2008년 사업보고/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와 심의 및 승인, 2009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기타 현안에 대한 심의가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2009년 제1차 이사회

2009년 제1차 이사회가 지난 2월 5일 롯데호텔 36층 비클리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8년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와 심의, 2009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신입회원 승인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두산베어스로 자리를 옮긴 김진 사장(전 두산 홍보실)과 제일기획 김태호 전무(전 삼성 전무)에 대한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제17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행

소비자들의 광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의 건전한 광고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이 올해로 열 일곱 해를 맞았다. 지난 1월 22일까지 응모된 작품을 대상으로 2월 한달간 총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각 매체별 업종별 좋은 광고상 등 총 40여 점의 최우수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회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밝은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민범준 _ 한국광고주협회장

지난 한해는 우리 사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세계 경제 불황과 국내의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은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켰고, 이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를 놓고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것이란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제선진국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하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벌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매일수룩 우리 광고산업의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광고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두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었습니다. 방송광고의 법적 사전심의제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는 즉시 개선되었고, 독점판매제 역시 올해 말까지 개선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광고 선진화에 진일보한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광고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자는 기조 아래 일관된 목소리로 부당한 규제 개선, 합리적인 거래질서 확립, 광고의 과학화와, 광고주의 권리 회복을 주장해 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사를 비롯한 광고주의 광고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사업과 함께, 대인관계개선 사업, 대소비자관계개선 사업을 통해 매체사, 광고회사뿐만 아니라 유관단체,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은 협회 창립 20주년으로 여러 회원사의 도움과 협력 아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광고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KAA미디어현장'을 발표하여, 미디어의 과학화, 합리화와 함께 글로벌 기준에 맞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 협회는 새로운 각오로 선진 광고환경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2009 회원사를 비롯한 광고주를 대표하여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지배하는 바람직한 선진국형 광고시장을 만드는 데에 앞장설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매체시장이 격변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PTV의 본격 시행,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지상파방송의 환경 변화, 신문매체의 방송 진출 등 연초부터 미디어환경 변화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과 광고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광고주의 광고집행을 지원하고 선진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데에 힘을 것입니다.

아울러 협회 임직원 모두는 회원서비스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의 사업을 강화하고, 회원사의 광고 홍보 마케팅 활동에 있어 불합리적 요소를 개선하여 광고산업의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모쪼록 자유시장경제 원칙 아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광고활동이 소통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협회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09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밝은 희망과 웃음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